

한국어 속의 문화 탐색 가이드북

Exploring Culture Through Korean Language Guidebook



04 한국어의 경어법과 호칭어

교수자: 김중섭	
1차시	도입
2차시	경어법의 체계(주체높임과 객체높임)
3차시	경어법의 체계(어휘 높임과 상대높임)
4차시	호칭어와 지칭어
5차시	한국의 인사 및 마무리



K-컬처·스토리콘텐츠연구소
K-CULTURE-STORY CONTENTS RESEARCH INSTITUTE
KYUNG HEE UNIVERSITY

강의 개요

주차명	한국어의 경어법과 호칭어	
학습목표	경어법과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강의방식	☒ 교수자 얼굴 위주 촬영 비디오 ☒ PPT슬라이드와 오디오 ☐ 인터뷰 촬영 ☐ 대화 촬영 ☐ 현장 촬영	
강의언어	☒ 한국어 ☐ 영어 ☐ 기타()	
자막언어	☒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 수어 ☐ 기타()	
차시	차시명	학습내용
1	도입	첫인사, 학습 목표 및 핵심 어휘 확인, 관련 영상 확인
2	경어법의 체계(주체높임과 객체높임)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의 개념과 예시
3	경어법의 체계(어휘 높임과 상대높임)	어휘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의 개념과 예시
4	호칭어와 지칭어	호칭어와 지칭어의 개념 및 예시, 가족 호칭어 및 직장에서의 호칭어
5	한국의 인사 및 마무리	한국의 인사, 학습 내용 정리, 다음 주차 예고
학습 활동	☒ 동영상 강의 ☒ 읽기 자료(pdf 등) ☒ 퀴즈 등 연습문제 ☒ 토론/토의 ☐ 시연 및 현장 방문 ☐ 실습(실험, 시뮬레이션) ☐ 개인 과제 ☐ 협력 과제 ☒ 기타(시청각 자료)	



한국어 스크립트 | Korean Script

1차시 | 도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인의 민족성, 정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 김장, 우리, 의리 개념에 대해서 기억이 나나요? 그리고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 국화인 무궁화 국가인 애국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과 한국의 효 사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한국 문화에 대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에 대해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퀴즈와 학습활동 자료도 모두 확인하기 바랍니다. 매 수업에 나오는 자료를 모두 꼭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따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언어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경어법과 호칭어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 비해 나이가 많은 사람과 한국어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말할 겁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용하는 어휘가 있을까요? 한국어에는 대화를 하는 사람의 나이나 지위, 친근성에 따라 말을 다르게 구사하는 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경어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보다 경어법이 훨씬 많이 발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어에는 여러분이 보기에 낯선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확할 것 같은 문법과 어휘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도 틀린 한국어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 ‘밥 먹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있지만 틀린 표현입니다. ‘밥 먹어’는 반말이기 때문에 경어법 체계에 따라 ‘식사하셨어요?’, ‘밥 드셨어요?’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말하는 사람 간의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형성되면 나이를 물어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면 어떤 언어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외에도 아까 말했듯이 직위, 친밀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한국어의 경어법 체계를 살펴보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한국어 경어법 체계에 대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호칭어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가족 호칭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형’, ‘동생’ 하고 부르는 것인데요.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울 때 이 호칭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어떻게 한국어의 호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핵심 단어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읽으면 따라 읽기 바라겠습니다.

경어법

주체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어휘 높임

호칭어

손윗사람



위계질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따라 해 보기 바랍니다.

경어법

주체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어휘 높임

호칭어

손윗사람

위계질서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영상을 살펴볼까요?

동영상 : 문화끼리 만나다, 문화팅 1편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6197>

2차시 | 경어법의 체계(주체높임과 객체높임)

먼저 경어법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경어법은 사전에 어떤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가 표시되는 문법 기능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듣는 사람 혹은 어떤 대상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을 모두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어법은 높임법이라고도 합니다. 경어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현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체높임, 둘째, 객체 높임, 셋째, 상대 높임입니다. 이 외에도 특정한 어휘로 높임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높임의 방법이 다양해지는 것인데 이번 시간에는 주체높임과 객체 높임 다음 3차시에는 상대 높임과 어휘 높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체 높임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신다. 이 말을 한 사람은 주어의 지시대상인 주체, 즉,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을 하거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문장 속에 회사에 간 사람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체 높임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버지 뒤에 '께서', 서술어 부분에 선어말 어미인 '-(으)시-' 로 실현됩니다. 주체 높임이 적용된 문장을 몇 개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부모님께서 여행을 하세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은행에 가십니다.
부장님께서 손님을 만나실 겁니다.
할머니께서 한국어를 가르치십니다.

한 번 더 따라 읽어 보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여행을 하세요.
선생님께서 학교에 오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은행에 가십니다.
부장님께서 손님을 만나실 겁니다.
할머니께서 한국어를 가르치십니다.

높임은 높여야 할 사람을 직접 높이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로는 신체 일부나 높여야 할 사람과 관련을 가진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물을 높여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머리가 기세요. 이 문장은 어머니의 머리, 여기에서는 머리카락을 의미하는데요. 어머니의 머리를 높이고 있어 간접적으로 높인 경우가 됩니다. 사장님은 자녀가 돌이시라네요. 이 경우에는 사장의 자녀를 높이고 있고요. 우리 아버지는 직장이 머셔. 이 문장은 아버지의 직장을 높이고 있어 역시 간접높임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체를 높이는 방법도 있으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나요? 조금 복잡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려면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높이려고 하는 대상을 높이지 않을 때도 있고, 높일 필요가 없는 대



상을 높이는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왔어요. 이 말은 할머니에게 손자나 손녀가 어머니가 왔음을 알리는 문장입니다.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높여야 하지만 듣는 사람이 할머니이기 때문에 ‘오셨어요’가 아닌 ‘왔어요’를 썼습니다. 이렇게 높여야 할 주체를 높이지 않는 방법을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압존법.

반대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머니 언제 들어오시니? 듣는 사람이 손자이니 그 아이의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해서 ‘들어오니?’가 아니라 높임표현으로 ‘들어오시니?’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높일 필요는 없지만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높이는 방법을 가존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10년 전후로 압존법 표현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즉, “할머니 어머니 왔어요?” 보다는 “할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2011년에 간행된 ‘표준 언어 예절’에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존법은 학교 교육에서나 일반 한국어 교실에서도 엄격하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직장 상황에서는 주로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원이 사장님에게 말할 때는 “사장님, 김 과장님이 오늘 결근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높임 표현은 보통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어도 높이지 않을 수도 있고 높일 필요가 없을 때도 높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드셨다.

두 문장은 모두 가능한 표현입니다. 첫 문장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때는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면 ‘만드셨다’처럼 높여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께서’, ‘-(으)시-’로 실현되는 주체높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장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 있었죠? “어머니가 회사에 간다.”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회사에 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객체 높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객체는 상대 높임의 대상보다 더 존귀한 인물이어야 합니다. 신분사회가 아닌 현대 한국에서 존귀한 인물이란, 나이가 많거나 친족간에 항렬이 높거나 혹은 직장에서 지위가 높은 상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이 가끔 상충하는 일도 있는데 그때는 경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현대 언어생활에서 객체높임법은 적극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객체 높임은 주어가 아닌 그 외 문장성분이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아이는 누구에게 인사했습니까? 네,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께 인사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인사를 하는 대상인 부사어의 지시대상인 할아버지를 높여서 높임표현 ‘께’를 붙인 경우입니다. 객체 높임은 주로 목적어, 부사어 등이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데요. 보통은 부사격조사 ‘께’에 의해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도 선생님을 따라서 천천히 한번 읽어 보기 바랍니다. 저는 과장님께 전화했어요. 애들아 선생님께 인사해라. 수지는 교수님께 이메일을 써요. 민우는 부모님께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김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한 번 더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따라 읽어 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전화했어요.

애들아 선생님께 인사해라.





수지는 교수님께 이메일을 써요.
민우는 부모님께 선물을 보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김 선생님께 수업을 듣고 있어요.

이렇게 객체 높임으로 사용되는 ‘께’는 어휘적인 요소가 아니라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조사 ‘께’는 부사어 뒤에만 붙을 수 있어서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은 어휘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휘적인 높임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차시 | 경어법의 체계(어휘 높임과 상대높임)

우리는 지금까지 주체높임과 객체 높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객체 높임에서 목적어를 높이는 방법은 어휘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죠. 사실 어휘 높임은 주체높임과 객체 높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차시에 어휘 높임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상대 높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휘를 사용하는 높임법은 주체높임과 객체높임법에서 나타납니다.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주체나 개체를 높이는 것인데요. 물론 문장의 주체와 청자가 일치하거나 객체와 청자가 일치되는 경우라면 이러한 높임 어휘의 사용이 청자까지 높이게 되어 상대높임법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휘를 이용한 높임법은 주체 높임법과 객체높임법에 해당합니다. 높임표현으로 사용되는 어휘는 대체로 명사와 동사가 주를 이룹니다. 대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부사나 감탄사가 사용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휘적 높임법에 사용되는 명사 가운데 주종을 이루는 것은 일반 명사의 존칭 접미사인 ‘-님’이 붙어서 형성된 파생어입니다. 먼저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여행을 하세요.
아드님께서도 뭘 하시는지요?**

앞에서 본 문장도 있죠? 부모와 아들에 ‘님’을 붙여서 부모님 아드님이 되었습니다. 주어를 높이고 있죠?

**저는 과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따님께 어떤 뭇이 어울릴까요?**

여기에서도 앞에서 본 문장이 들어있어요. 직위를 나타내는 과장 또 딸에 ‘님’을 붙여서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예입니다. 이렇게 ‘님’을 붙여서 높임의 어휘를 만드는 예는 친족 명칭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드님, 따님, 이모님, 형님’ 이런 말들이 있죠. 친족 명칭 뒤에 님이 붙었을 때 아드님, 따님처럼 ㄹ 받침이 있는 경우는 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님, 며느님, 할아버님처럼 명칭의 형태의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님, 며느님, 할아버님처럼 명칭의 형태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나는 ‘나’가 빠지고 ‘님’이 붙어서 누님이 되었고요. 며느리는 ‘니’가 빠져서 ‘님’이 붙어서 며느님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도 ‘지’가 빠지고 ‘님’이 붙어서 할아버님이 되었으니 형태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교수님, 원장님, 사장님처럼 직위나 직책 명칭 뒤에도 ‘님’이 붙어 높임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손님, 사모님처럼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는 ‘님’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이 붙지 않고도 높임의 의미를 가진 명사들이 있는데 ‘댁, 진지, 귀교, 귀사’와 같은 표현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주체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댁은 집에 높은 말인데 또 진지는 밥에 높은말이고요. 귀교는 상대방에 학교를 높여서 부르는 말, 귀사는 상대방의 회사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 됩니다.

다음으로 ‘님’이 아닌 ‘분’이 붙어 높임을 실현하기도 하는데요. 친구분, 동료분, 남편분, 환자분 등의 앞에 말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님’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대명사의 경우에 특히 이인칭 대명사에서 높인 의미가 있는데 ‘너’가 아닌 그대, 당신, 어르신 등을 사용합니다. 복수형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어르신’은 괜찮지만 ‘그대’는 일상에서 말할 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라고 표현하면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모르는 사람에게나 싸울 때 상대방을 낮춰 말하는 표현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동사는 주체 높임법에 사용되는 높임 어휘들이 많습니다. ‘자다’의 높임말인 ‘주무시다’, ‘먹다’의 높임말인 ‘자시다, 잡수시다’가 있고요. ‘있다’의 높임말로는 ‘계시다’가 있습니다. 객체높임법에 사용되는 동사는 ‘데리다’의 높임말인 ‘모시다’, ‘보다’의 높임말은 ‘뵈다, 뵙다’, ‘알리다’의 높임말인 ‘아뢰다’, ‘묻다’의 높임말인 ‘여쭙다, 여쭙다’, ‘주다’의 높임말인 ‘드리다’, ‘받다’의 높임말인 ‘받잡다’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용사로는 ‘아프다’의 높임말로는 ‘편찮으시다’가 있습니다. 부사 가운데 ‘손수’는 ‘직접’에 대한 높임 어휘라고 생각합니다. 감탄사 가운데는 ‘네’와 ‘예’가 ‘응’의 높임말이며 ‘아니요’가 ‘아니’의 높임말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도 여러 높임 어휘를 넣어 문장으로 한번 익혀 볼까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해 보세요.

할아버님께서 지금 주무십니다.

할머님께서 진지를 잡수십니다.

이모님께서 요즘 한국에 계십니다.

저는 어르신께 궁금한 것을 여쭙었습니다.

원장님 댁에서 원장님과 사모님을 뵈었습니다.

친구분을 모시고 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높임 어휘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지금 주무십니다.

할머님께서 진지를 잡수십니다.

이모님께서 요즘 한국에 계십니다.

저는 어르신께 궁금한 것을 여쭙었습니다.

원장님 댁에서 원장님과 사모님을 뵈었습니다.

친구분을 모시고 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높이는 방법이 많은 것을 보니 정말 한국의 높임 체계가 복잡한 것을 알 수 있겠죠? 한국이 얼마나 높임을 중시하는 문화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다음으로 상대 높임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상대 높임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대 높임은 주로 문장 종결 요소에 의해 표현되는데요. 문장을 살펴보면 상대 높임의 체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 듣는 상대방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존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그 태도를 문장 종결어미 형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상대 높임에는 여러 종류의 문체가 있습니다. 청자가 아주 높임을 받아야 할 대상이거나 격식적인 상황에서 하는 발화라면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요체를 널리 사용합니다. 특히 해요체는 상대방을 높이는데 두루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구어의 비격식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범위가 넓습니다. 해체 와 해라체는 상대방을 높이지 않는 비격식체 문제입니다. 해체가 해라체에 비해 구어의 비격식적 사용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해체는 일반적으로 아주 낮은 의미를 실현하지 않는데 해라체는 너무 낮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한 사이거나 상대방이 아주 나이가 어린 손아랫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계체와 하오체는 조금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상대 높임 등급입니다. 하계체는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더 나이가 많은 윗사람이 조금 덜 나이가 많은 아랫사람을 대접하기 위하여 높일 때 사용하는 상대높임법입니다.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노교수님이 나이가 많아진 제자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아랫사람을 대접하여 높여서 말한다는 점에서 다른 상대높임법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하오체는 연령이 높은 세대에서 동년배들끼리 서로를 높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도 격식을 차려 말할 때 널리 사용됩니다. 하계체는 손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지만 높임의 의미를 갖는 데 반해 하오체는 손아랫사람이 아닌데 사용하지만 높임의 의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인식된다는 조금 아이러니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계체와 하오체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좀처럼 들어보기가 어려운 문체입니다. 젊은이들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예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역사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하계체 하오체를 많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장으로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민호가 왔습니다.” 이때는 하십시오체죠.

“민호가 왔어요.” 해요체입니다.

“민호가 왔소?” 하오체입니다.

“민호가 왔네” 하계체입니다.

“민호가 왔다” 해라체입니다.

“민호가 왔어” 해체입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따라 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민호가 왔습니다.

민호가 왔어요.

민호가 왔소?

민호가 왔네.

민호가 왔다.

민호가 왔어.

상대 높임에 전체적인 문체를 살펴보았으니 각 문체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체는 상대 높임 등급 중 최상위 등급에 속합니다. 줄여서 합쇼체라고도 합니다. 명령형은 ‘하십시오’로 나타나고 평서형은 ‘합니다’, 의문형은 ‘합니까’, 청유형은 ‘합시다’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상대가 매우 높여야 할 대상인 경우 하십시오체의 청유형이나 명령형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유형의 경우 높은 대상을 말하는 사람과 동급으로 취급하게 되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명령형도 높은 대상하기에 어떤 행위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화용 용어적인 제약 때문에 쓰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러 갑시다.

할아버지 식사하러 가십시오.

이 문장이 괜찮습니까? 할아버지에게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할 순 없겠죠? 화용론적으로 매우 어색합니다. 대신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할아버지 식사하러 가시죠.
할아버지 식사하러 가시겠어요?
할아버지 식사하러 가지 않으시겠어요?

하오체는 상대 높임의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이는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극존칭이 아닌 일반적 존칭에 해당하는데요. 나이나 사회적 지위 면에서 일반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할 상대지만 내가 깎듯이 존중해줄 필요까지는 없는 상대에 대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공손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어 구어체에서 하오체는 해요체에게 밀려 드물게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아직 구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디 가시오?
시장에 잠깐 나가요.
같이 가겠소?

이렇게 하오체는 '오'와 '소'가 주로 쓰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하오체는 문어 형태로 특수하게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어 교제나 시험에서 주로 아래와 같은 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의 지시문에서도 하오체가 사용됩니다. 하계체는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사용하지만 말의 위계상 청자를 낮추는 등급이 아니라, 청자를 대접해서 높이는 상대높임법에 하나입니다.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선어말어미가 자주 함께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계체는 주로 비공식적인 대화 상황에서 구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특별한 문장종결 어미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평소형은 '네'와 '다네'로 나타나고 의문형은 '나'와 '인가'로 나타납니다. 청유형은 '으세'나 '으세나'로, 또 명령형은 '게'로 나타납니다.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도착했네.
기분이 아주 좋다네.
요즘 무슨 일 없나?
회사는 어떤가?
앞으로 자주 만나세.
여행도 같이 가세나.
이쪽으로 오게. 많이 드시게.

하계체도 아주 다양하죠? 해라체는 상대높임법 중에서 가장 아래 등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어에서는 손아랫사람이나 서열이 비슷한 사람에게 쓰고 문어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해라체는 명칭은 명령형 문장 종결어미의 형태를 띤 것입니다. 해라는 직접 명령에 사용되는 형태로 구어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구호, 표어와 같은 문어에는 '해라'가 아닌 '하라'가 나타납니다. 바로 구어와 문어의 형태가 다른 것이죠.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호는 한국에 사니?



민호야 한국에 놀러 가자.
민호야 학교에 가거라.
학교에 가라.

‘-니’는 이형태 없이 동사, 형용사에서 자주 쓰이는 해라체 의문형 어미입니다. ‘-자’는 청유형 어미인데요. 명령형 어미는 다양한 이형태가 있습니다. ‘가거라’는 직접 명령형, ‘가라’는 간접 명령형입니다. 해요체는 두루높임체라고 합니다. 두루낮춤의 해체와 함께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주로 비공식적인 상황의 구어 등 상대방에 대해 아주 깍듯이 예를 갖추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해요체 역시 문장 종결어미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해체 종결어미에 보조사 ‘요’가 덧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언급한 해체는 친구 사이처럼 동등한 반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혹은 손윗사람이 손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주로 구어에 나타나며 비격식적인 어투에 속합니다. 해체를 이루는 종결어미는 해요체를 이루는 종결어미에서 ‘요’를 제외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라체로 대접할 상대와 거의 유사하거나 그보다 약간 대접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상대 높임법 등급입니다. 해요체와 해체의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요체 문장입니다.

비빔밥을 먹어요.
영화를 봐요.
친구를 만나요.

다음은 해체의 문장들인데요.

비빔밥을 먹어.
영화를 봐.
친구를 만나.

‘요’가 붙고 떨어지는 것만 다르니 쉽죠? 지금까지 한국어의 경어법 체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사람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한국 문화가 언어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4차시 | 호칭어와 지칭어

이번 시간에는 호칭어와 지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알아볼 겁니다. 호칭어는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대화의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지칭어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나 대화의 상대방 또는 제삼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여러분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식당 사장님을 ‘삼촌, 이모’라고 부르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손님의 삼촌이나 이모일까요? 호칭어나 지칭어의 의미를 모르면 대화자 간의 관계나 대화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어로 말할 때 표현이나 문법이 좀 틀려도 의사소통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호칭어와 지칭어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우하는지를 보여주기에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세히 한국어의 호칭어와 지칭어를 배우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한국 문화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재미있게 공부합시다.

한 단어가 호칭어와 지칭어로 모두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 언제 나가세요?

민수야 아버지 언제 나가시지?

앞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부르는 말이고 뒤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아버지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머니를 의미하는 노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모님 언제 나가십니까?

노모께서 오후에 나가십니다.

이때 앞에 말한 것처럼 노모를 부르는 말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칭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호칭과 지칭의 범위를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따른 호칭, 또 지칭의 범위는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가족과 친족의 경우 가족 호칭어를 쓰면 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직함이나 직급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직함이 있으면 직함으로 부르면 되겠죠. ‘사장님,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직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예시로 봤듯이, 식당 사장님에게 ‘삼촌, 이모’라고 불렀던 것처럼 가족 호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 호칭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전반적인 내용은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호칭어와 지칭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가족, 친족을 만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배우고, 자라면서 인간관계를 알게 되고 적절한 호칭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의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옛 문헌에는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 백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말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아빠, 친정 아버지, 선친, 가친

등등 많이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옛날보다 호칭어가 단순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호칭어와 지칭어는 한국 사람들에게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호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라도 이 문화적 바탕을 깊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버지를 부르는 말은 아버지, 아빠입니다. 격식을 갖춰야 할 상황이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보통 아버지를 씁니다. 평소에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좋은데, 아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높여 말하는 표현으로는 가친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남편에게 지칭할 때는 아버지 또는 친정 아버지라고 합니다. 부산 아버지처럼 친정 지역 이름을 넣어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 이름을 넣어서 민수 외할아버지로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아내와 처가에게 자신의 아버지로 말할 때는 아버지로 지칭합니다. 역시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진이 할아버지로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칭할 때는 살아계실 때처럼 아버지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람에게는 아버님으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아버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선친이라는 말은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남에게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님, 엄마, 모친, 선비, 선자.

격식을 갖춰야 할 상황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주로 어머니를 씁니다.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부르거나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엄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정중히 이르는 말에는 모친이 대표적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할 때는 선비, 선자라는 표현이 있지만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높임과 낮춤, 나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가족, 살아계신 분과 돌아가신 분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같은 대상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다니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가족 호칭어의 독특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에 재미있는 것이 언니라는 표현인데요. 언니는 내가 여자일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매가 아닌 어린 후배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파는 종업원이 여성일 때 언니라고 부르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형, 형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전에 농경사회였던 한국 사회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자리 잡은 언어문화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한곳에 머물렀던 구성원 사이에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서로를 잘 인식할 수 있었고 가족 호칭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현대 한국에도 남아 있습니다. 즉, 가족 호칭어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까지 넓게 확대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으로 한국어는 주어를 잘 생략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때 익숙한 가족 호칭어를 사용해서 친근감을 드러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게에서 점원이 손님에게 “아버님, 어머님, 이거 입어 보세요.” 하거나 “형님, 잘 어울리십니다.”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 구조상의 특징에서 생긴 이 유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가게, 시장에서는 가족 호칭어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모님, 내일 출근하세요?”와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관습적으로 이름을 부르기를 꺼려하는 한국 문화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간호사가 나이 든 환자에게 “할아버지 저희 병원 처음 오시죠?”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로 전통사회의 끈끈한 유대감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동호회, 동창회 등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에서도 서로 가족 호칭어를 사용해 부르면서 친숙함을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구체적으로 배운 적이 없겠지만 한국 생활 속에서 실제로 구현돼서 살아있는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특한 가족 호칭어 중에서 앞에서 소개한 이모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로 아주 가까운 친척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모를 어머니의 친구에게,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에게, 또는 아이를 돌봐주거나 집안 일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서 만난 분을 부를 때도 사용합니다. 그 상황이 매우 공식적이거나 격식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크게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상황에 있는 남성에게 삼촌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 빈도는 이모 보다는 낮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어머니의 가족을 더 친숙하게 느끼는 정서와 관련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의 형제라는 친숙함 때문에 더 많이 친숙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공적인 관계거나 전문적이라고 생각하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모를 쓰게 되면 실례가 됩니다. 또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 쓰면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형제이니 이모를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에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형이나 언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둘 다 가족이 아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친근하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학교, 선배나 직장동료를 친숙하게 부를 때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언니는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식당 종업원이나 시장에서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형은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에서 쓰는 호칭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하루에 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냅니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직장에서의 언어 예절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상사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은 김 선생님, 이민수 선생님, 박 선배님, 박수진 선배님, 민 여사님, 민영희 여사님과 같이 다양합니다. 직함이 있는 상사는 직함에 ‘님’을 붙여 과장님, 부장님으로 부르고 가리킵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부장이 여러 명 한자리에 있거나 다른 부서의 상급자라는 경우 총무부장님 또는 김미정 부장님처럼 직함 앞에 부서나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명확하게 지칭하거나 호칭하면 됩니다. 아랫사람을 부를 때에도 이과장, 박 팀장처럼 성을 붙여 직급명을 부르면 됩니다. 인턴사원, 아르바이트사원처럼 직책과 직급명이 없는 아랫사람은 이철수 씨와 같이 성과 이름에 ‘씨’를 붙여서 부릅니다. 누구누구 씨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여러분이 친구나 동료끼리 사용하는 누구누구 씨는 아랫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료나 동급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동료나 동급자끼리는 ‘씨’를 붙여 부르는 방법 외에도 연령을 고려해야 하는 때가 있죠. 회사에서 직급이 같아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직급에 ‘님’을 붙여 ‘김 과장님’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에서는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호칭을 바꿔서 부르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 부장 등의 직급의 차이에도 이름 뒤에 ‘님’이나 ‘프로’를 붙이거나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든 변화를 준 것입니다. 언어가 변하면서 점점 분위기나 문화도 변화가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칭어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객님’이라는 말이 생성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백화점에서 이 호칭이 시작되었는데 텔레마케팅이나 홈쇼



핑, 서비스업종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이나 작은 가게에서는 고객님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직함 호칭어가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직함 호칭어인 ‘선생님, 사모님, 사장님, 학생’과 같은 말이 서비스 업계에서 손님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으로도 확산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사무직이나 높여서 부르거나 할 때 선생님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높임 호칭을 과하게 사용한다고 비판도 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존중해주려는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인칭 대명사인 ‘자기’라는 말이 확장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젊은 남녀 사이에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러나 옷가게, 미용실에서 종업원이 손님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보통은 여성 화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사람이 아닌 호칭어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청자들은 대체로 ‘고객님’보다 ‘손님’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선생님, 어르신, 사모님, 어머니’이라는 호칭을 선호했고요. 손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언니’의 호감도는 낮았고, ‘아저씨, 사장님’보다는 ‘선생님’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어 호칭어와 지칭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체계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해 확인했으니, 한국 사람과 만나고 어떤 인간관계가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호칭어 또 지칭어와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비슷한 점, 차이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한국어와 문화를 배울 때 좋은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차시 | 한국의 인사 및 마무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국의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헬로우, 니하오, 곤니찌와, 봉쥬르, 차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인사 속에 문화를 담고 있는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경어법과 호칭어처럼 우리 언어생활에서 떼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인사 치레로 "밥 한번 먹자!"고 흔히 말을 하고, 일상생활에서 감사함이나 미안함을 표현할 때는 얼굴 표정이나 고개를 숙이는 행동과 함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늘 하게 마련입니다.

상황별로 몇 가지 인사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적인 의사 표현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아침이나 저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를 대표적으로 쓰고 헤어질 때는 "안녕히 가세요."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헤어질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자.", "언제 술 한 잔 하자."하고 인사할 때도 있는데요. 이런 인사말에는 문화적인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은 음식을 먹는 것이 관계 유지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사교적으로 말하는 인사말인 것입니다. 점심시간에 직장이나 학교에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에는 "안녕하세요?" 대신에 "점심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라고 인사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로 식사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단한 한국식 인사입니다. 이것 역시 음식을 먹는 것이 관계 유지에 중요한 한국 문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런 인사를 통해서 우정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와 상대방에게 대한 꾸준한 관심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볍게 "네."라고 대답하거나 "네, 점심 드셨어요?"라고 다시 물어보면서 답을 하기도 합니다.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가볍게 "어디 가세요?"라고 인사할 때도 많습니다. 정말로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는 "어디 가세요?"라고 말하지만 이 표현은 정말로 어디 가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답이 필요 없고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인사 표현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를 듣고 가볍게 "응" 또는 "안녕" 이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처음 만나게 된 사람에게는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람에게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손님을 보낼 때 하는 인사말은 "안녕히 가십시오."입니다. 친한 사이의 경우에는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손아랫사람에게는 "잘 가." "잘 가거라."라고 말하고 특별한 경우 손윗사람에게는 "살펴 가십시오"도 가능합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겠습니다."와 "내일 뵙겠습니다."라고 인사합니다. "먼저 나가겠습니다."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라고도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면서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을 하는 젊은 사람들은 그 말이 인사말로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윗사람에게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년배나 아래 직원에게는 "먼저 갑니다.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어 경어법 체계와 호칭어, 지칭어를 배워봤습니다. 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배운 경어법을 복습하기 위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여러분도 따라 해 보십시오.



부모님께서 한국에 사세요?
사장님께서 사무실에 가셨어요?
민호는 할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무십니다.
할머니께서 진지를 잡수십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식당에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에 경어법 체계가 있나요? 호칭어와 지칭어 체계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고 SNS에 소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수업 후에 퀴즈도 잘 풀고 수업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또 유익한 자료들도 제공되니 꼭 보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 외래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록 하겠습니다. 외래어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와 한국어에 동화되어 한국어처럼 사용되는 단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친근한 단어들을 많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습활동 자료 | Learning Activity Sources

■ 학습활동 1: 퀴즈

1. 경어법의 다른 이름을 고르세요.

가. 반말 나. 지칭어 다. 높임법 라. 호칭어

2. 다음 중 높임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가. 민수야, 기다려.

나. 미나 씨, 언제 왔어요?

다.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라. 선생님이 곧 오실 겁니다.

3. 다음 중 어휘 높임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세요.

가. 집 - 댁

나. 말 - 말씀

다. 있다 - 뵙다

라. 자다 - 주무시다

4. 호칭어가 사용된 문장을 고르세요.

가. 친구를 집에 초대했어요.

나. 아빠, 언제 은행에 가세요?

다. 오늘 언니와 동생이 집에 있어요.

라. 이걸 선생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답안>

1. 다 2. 가 3. 다 4. 나

■ 학습활동 2: 시청각 자료

다음은 높임말과 반말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런 상황이 종종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무례하게 보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영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반말과 존댓말을 섞을까?>

제작: Talk To Me In Korean 톡투미 인 코리아

<https://www.youtube.com/watch?v=nR0F-QAOII>



■ 학습활동 3: 확장 읽기 자료 및 생각해 볼 문제

1. 확장 읽기 자료

국립국어원(2022).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2022년 3월호. 24쪽.

[문장 다듬기] 과한 높임 표현은 적절하게 고쳐 써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 생각하십니까? → 생각하십니까?**

설문문항 등에서 ‘-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도한 높임 표현이므로 적절하게 고쳐 써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께 조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 국민의 조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해당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등을 설명할 때
과도한 높임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임 표현의 사용을 줄여 언어사용의 적절성을 지키고
의미 전달이 더욱 명료해지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로
→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문장에서는 ‘-사’가 너무 많아
문장이 부자연스러우므로 적절하게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2. 생각해 볼 문제

- 여러분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에도 ‘높임법’과 같은 표현이나 어휘 등이 있습니까? 조사해 보고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나 다른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영어 스크립트 | English Script

The First Session | Introduction

How are you doing? It's already the fourth lecture. First, let's review what we learned last time. Last time, we looked at the ethnicity and emotions of Koreans. Do you remember the concept of affection, *gimjang*, we, and fidelity? We also talked about the national flag of South Korea, hibiscus (the national flower of South Korea), and the national anthem of South Korea. We also learned about humanitarianism and Korean filial piety. Which of these impressed you the most? Were you able to understand the culture, sentiments, and thoughts of Korea well? Please check all the quizzes and study materials as well. It will be helpful for you if you review all the reference materials for each class.

Today's class will discuss honorification and addressing term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past lecture. Let's imagine something first. How would you speak in Korean with someone older than you? How would you address the person? Are there any special words you would use? The Korean language has ways to use word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ge, position, and friendliness of the listener. This is called honorification.

Korean's honorific system is much more developed than in other languages. So, you may find unfamiliar phenomena in the Korean language. It means that even if you make a sentence by connecting words using the right grammar, it can be an incorrect Korean expression. For example, if you say to the teacher, "eat rice", the teacher may understand what you mean. However, it is incorrect. Since "eat rice" is rude, you should say like "Did you have breakfast?" or "Have you eaten?" according to honorific rules. In Korea, it is important to maintain linguistic etiquette during dialogue. Therefore, when people meet new people and form relationships, they ask for their age. This is because if you know the age of the other person, you know what expression you should use. In addition to age, as I said before, it can vary depending on position, friendliness, etc. Today, we will review this honorific system of the Korean language and talk about the Korean culture contained in it. We are going to study the Korean honorific system in detail.

Second, we will examine addressing terms in Korean. You've probably seen a lot of scenes in Korean dramas and movies where people addressed non-family members using kinship terms of address. One example is to address someone who is not in your family member as "older brother" or "younger brother". Foreign students find this appellation very difficult when learning Korean. Learning the addressing terms in Korean will help you understand Korean culture. Let's take a closer look at it today with me. Let's read today's keywords together today. Please listen carefully and repeat after me.



Honorification
Subject honorific
Object honorific
Relative honorific
Vocabulary honorific
Addressing terms
Senior
Hierarchy

I read once more slowly. Please repeat after me.

Honorification
Subject honorific
Object honorific
Relative honorific
Vocabulary honorific
Addressing terms
Senior
Hierarchy

Hold one second! Shall we take a look at the funny video?

video : Cultures Meet, Culture Date Part 1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6197>

The Second Session | The system of Honorification (Subject Honorification and Object Honorification)

First, let's look at the definition of honorific rules. It is explained in the dictionary that honorification is a grammatical function expressing a respectful attitude toward an object. It refers to all expressions used to respect the listener or a subject while speaking. The honorific terms are also called the respective terms. Honorification is realized in several ways. It can be divided into three main categories.

The first is the subject honorific, the second is object honorific, and the third is relative honorific.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a way to express respect with specific vocabulary. There are various ways to show respect to others. Today's lecture will explain subject honorific and object honorific. The next class, the third lecture, will summarize relative honorific and vocabulary honorific.

First,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subject honorific. Let's read the next sentence. Father goes to work. The person who said this sentence is showing respect to the subject who is conducting the action of the verb in the sentence or whose condition is described. To put it simply, the sentence show respect toward the father who went to work. It is called subject honorific. Here, it is realized by adding "ggaeseo" after the father and "-(eu)si-" in the verb, which is the pre-final ending. Let's read a few sentences with the subject honorific. Please slowly repeat after me.

My parents are traveling.
A teacher came to school.
A grandfather is going to the bank.
The department head will meet the customer.
The grandmother teaches Korean.

Please repeat after me one more time.

My parents are traveling.
A teacher came to school.
A grandfather is going to the bank.
The department head will meet the customer.
The grandmother teaches Korean.

In principle, you need to show respect to the person you are supposed to respect. Sometimes, it is possible to respect someone indirectly by respecting a body part or another person or object that is related to the person to be respected. My mother has long hair. The head in the original Korean sentence means hairs. This sentence respects



the mother's hair and it is the indirect honorific. The president has two children. In this case, it respects the children of the president. The position of my father in the work is something. This shows indirect honorific because it respects the father's job. Do you think it's a bit complicated because there is a way to indirectly respect a subject like this? Although it's a little complicated, it's a common expression in Korea. This is a course you must go through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There are also ways not to show respect to a target to be resp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listener and expressions respecting an object that we do not need to respect. Grandmother, the mother is here. This sentence is said by a grandchild to inform the grandmother that the mother has come. Although a son or a daughter must honor the mother, the grandchild used "watseoyo (come)" instead of "oseoteoyo (come)" because the listener is the grandmother. "Apjonbeop" is a way of not respecting someone who should be respected. Apjonbeop.

Conversely, a grandmother may ask her grandchild. When will your mother come back? Since the listener is the grandson,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mother and the child, she used "duleosini? (come)" instead of "duleooni? (come)". Gajonbeop is a way to use honorifics in consideration for the listener, even though it is not necessary to use honorifics. However, around 2010, the expression of apjonbeop is gradually decreasing. In other words, "Grandmother, the mother is here (할머니 어머니 오셨어요)" sounds more natural than "Grandmother, the mother is here (할머니 어머니 왔어요)". Therefore,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published "Standard Language Etiquette" in 2011 and recognized both situations as standard language usages. Therefore, school education or general Korean language course does not strictly teach apjonbeop. However, there is a caveat. Apjonbeop is usually not used in the workplace. When a junior employee speaks to the president, it is good to say, "Sir, Manager Kim is absent from work today." There is one more thing to note. Honorific expressions usually depend on the attitude of the speaker. One may not use honorifics even if the speaker needs to, and one may use honorifics when the speaker doesn't need to. Let's take a look at an example.

King Sejong the Great invented Hangeul.

King Sejong the Great invented Hangeul.

Both sentences are correct. As in the first sentence, the speaker does not need to use honorifics when objectively describing a historical fact. However, if you personally like King Sejong the Great and have a lot of interest, you can use honorifics such as "invented (만드셨다)". So far, we have reviewed mainly the subject honorific that is realized by using "ggaeseo" and "-(eu)si-". "There was a way to respect the subject of a sentence? It should say "My mother is going to work (어머니께서 회사에 가신다)" instead of "My mother is going to work (어머니가 회사에 간다)".

Next, let's study the object honorific. In this case, the object must be a person who is more honorable than the target of relative honorific. Since modern Korea does not have



a social class, an honorable person is someone who is older, is in a higher generation among relatives, or has a high position in the workplace. These three criteria sometimes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then you need to decide on a case-by-case basis. In modern linguistic practice, the object honorific is often not actively implemented. The objective honorific is a way to show respect to the object pointed to by other sentence components other than the subject. It is a little hard to understand, isn't it?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The child said hello to the grandfather. To whom did the child greet in this sentence? Yes, the child said hello to the grandfather. This sentence adds "gge", an honorific expression, to the grandfather, which is the referent of the adverb, the object of the child's greeting, to honor the grandfather. The object honorific mainly shows respect to the object indicated by an object or an adverb. Usually, it can be expressed by "gge", an adverbial case marker. Let's read some sentences. Please repeat after me slowly.

I called the manager.
Guys, say hello to your teacher.
Suji is writings an email to the professor.
Minwoo sent a gift to his parents.
I heard the story from the president.
I am taking a class from Mr. Kim.

Please repeat after me slowly.

I called the manager.
Guys, say hello to your teacher.
Suji is writings an email to the professor.
Minwoo sent a gift to his parents.
I heard the story from the president.
I am taking a class from Mr. Kim.

"gge", used as the object honorific, is a grammatical element, not a lexical element. However, "gge", a postposition, can only be added at the end of an adverb, so a vocabularic method must be used to respect an object. We will talk about the vocabulary honorific in the next lecture.

The Third Session | The system of Honorification (Vocabulary Honorification and Addressee Honorification)

So far, we have reviewed the subject honorific and the object honorific. I also mentioned that the vocabularic method had to be used to honor the object in the object honorific. In fact, the vocabulary honorific can be used for both subject honorific and object honorific. We're going to review the relative honorific after going over the vocabulary honorific first in this lecture. The honorific system using vocabulary can be found in the subject honorific and the object honorific. It is to respect a subject or an object using a special vocabulary. Of course, if the subject and listener of a sentence are the same or if the object and listener are the same, Using honorific vocabulary also respects the listener. Therefore, it can be seen as the relative honorific. However, basically, the honorification using vocabulary corresponds to the subject honorific and the object honorific. Vocabularies used for honorific expressions are usually made up of nouns and verbs. Pronouns, adjectives, adverbs, and interjections are sometimes used. Among the nouns used in the vocabulary honorific, derivatives formed by appending “-nim”, an honorific suffix for a common noun, are dominant. Let's read some sentences first.

Parents are traveling.

What does your son do for a living?

You have seen some of them in the previous lecture. They became parents (부모님) and son (아드님) by adding “nim” to parents (부모) and son. They respect subjects, doesn't it?

I called the manager.

What clothes will go well with your daughter?

You can also find sentences that I introduced before. This is an example of realizing object honorific by adding “nim” to the manager, indicating a position, or the daughter. An example of adding “nim” to create an honorific vocabulary is often seen in the addressing terms of relatives. There are words like “son, daughter, aunt, and brother”. You can see that when ㄹ is used as the final consonant for the appellation of relatives such as son and daughter, it is omitted. Moreover, in some cases, it accompanies changes in the shape of appellation such as sister (누님), daughter-in-law (며느님), and grandfather (할아버님). Moreover, in some cases, it accompanies changes in the shape of appellation such as sister (누님), daughter-in-law (며느님), and grandfather (할아버님). An



older sister (누나) becomes an older sister (누님) by omitting “na” and adding “nim”. For a daughter-in-law (며느리), it becomes a daughter-in-law (며느님) by omitting “ni” and adding “nim”. A grandfather (할아버지) also changes its shape a bit to a grandfather (할아버님) by losing “ji” and adding “nim”. Moreover, it is also possible to express respect by adding “nim” to the end of a job title or a position such as professor, director, and president. “Nim” can be added after nouns that indicate a social relationship, such as a guest or a wife. However, there are nouns that have the meaning of respect without adding “nim”. They include expressions such as “home (댁), steamed rice (진지), your school (귀교), and your company (귀사)”. These expressions are widely used for object honorifics, object honorifics, and relative honorifics. Home (댁) is an honorific form of home (집), and steamed rice (진지) is an honorific form of steamed rice (밥). Your school (귀교) is an honorific for the school (학교) of the listener, and your company (귀사) is an honorific for the company (회사) of the listener.

Next, you may show respect by adding “bun” instead of “nim”. It sometimes makes the word in front of it more honorable such as friend (친구분), co-worker (동료분), husband (남편분), and patient (환자분). It is used a lot like “nim”. In the case of pronouns, second-person pronouns imply respect. Therefore, you (그대, 당신, or 어르신) is used instead of “you (너)”. You (여러분), which you know, is also used as a plural form. However, you (여러분 and 어르신) are okay, but “you (그대)” is rarely used in everyday speech. “You (그대)” gives an awkward feeling. Moreover, “you (당신)” needs to be used carefully because this expression may look down on a stranger or an opponent in a fight depending on the situation.

There are many honorific verbs used for the subject honorific. “Sleep (주무시다)” is an honorific form of “sleep (자다)”. “Eat (자시다 and 잡수시다)” is an honorific form of “eat (먹다)”. “Exist (계시다)” is an honorific form of “exist (있다)”. For example, there are verbs used for the object honorific: “take (모시다)” is an honorific form of “take (데리다)”; “see (봔다, 뵈다)” is an honorific form of “see (보다)”; “inform (아뢰다)” is an honorific form of “inform (알리다)”; “ask (여쭙다, 여쭙다)” is an honorific form of “ask (묻다)”; “give (드리다)” is an honorific form of “give (주다)”; and “receive (받잡다)” is an honorific form of “receive (받다)”. I think you have heard all of them at least once. As an adjective, “sick (편찮으시다)” is an honorific form of “sick (아프다)”. Among adverbs, “directly (손수)” is thought to be an honorific form of “directly (직접)”. Among exclamations, “yes (네 and 예)” is an honorific form of “yes (응)”, while “no (아니요)” is an honorific form of “no (아니)”. Then, let’s learn and practice various honorific vocabularies using sentences including them. I will read it first. Please repeat after me.

A grandfather is sleeping now.

A grandmother is having her meal.

My aunt is staying in South Korea these days.

I asked the gentleman a question.

I met the director and his wife at the director's house.

I will bring the friend to your place and tell you.



I will read it slowly one more time. Please pay attention to how honorific vocabularies are different from ordinary vocabularies.

A grandfather is sleeping now.
A grandmother is having her meal.
My aunt is staying in South Korea these days.
I asked the gentleman a question.
I met the director and his wife at the director's house.
I will bring the friend to your place and tell you.

Well done. You can see that the honorific system of Korean is very complex from these diverse honorific forms. You must have noticed once again that Korean culture emphasizes honorifics a lot.

Next, let's study the relative honorific. The relative honorific is a way to respect the people involved in your conversation. The relative honorific is mainly expressed by sentence ending elements. Let's study the system of the relative honorific while reviewing sentences. The speaker decides how much respect the listener should receive in their relationship and Applies the attitude to the form of sentence-closing ending. The relative honorific has diverse styles. If the listener is to be highly respected or if the speech is made in a formal situation, the hasipsio form will be used. In the other general case, not like them, the haeyo form is widely used. In particular, the haeyo form is widely used because it is the most representative informal form of spoken language that is broadly used to show respect. The hae form and the haera form are informal forms that do not respect the listener. In spoken language, the hae form is used much more in the informal situation than the haera form. The hae form usually does not deliver impolite meaning, but the haera form can give the impression of being ignored or neglected too much.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se it unless you are speaking to a very close friend or someone very young than you.

The hage form and the hao form are the relative honorific grade and they are used in slightly special situations. The hage form is a relative honorific method used by an older person to show respect to a person who is younger or in a lower position in an older generation. It is mainly used by the mother-in-law and the father-in-law to the son-in-law and by the old professor to an old student. It also shows a characteristic different from other relative honorific methods as it treats a junior in a respectful way. The hao form is used between peers in an older generation to respect each other. It is also widely used in formal conversations between husband and wife. Although the hage form is used only toward social inferiors, it implies respect. The hao form has a slightly ironic characteristic that it can be used even if the listener is not a social inferior, but it has almost implication of respect. You will rarely hear the hage form and the hao form from the younger generation. It sounds very old-fashioned for young people. But these days, you can watch a lot of Korean historical dramas and movies. You can hear



a lot of hage form and hao form terms in these dramas and movies. Shall we review it with some sentences? Please repeat after me.

“Minho is here (민호가 왔습니다).” At this time, it is the hasipsio form.

“Minho is here (민호가 왔어요).” It is the haeyo form.

“Minho is here (민호가 왔소)” It is the hao form.

“Minho is here (민호가 왔네).” It is the hage form.

“Minho is here (민호가 왔다).” It is the haera form.

“Minho is here (민호가 왔어)” It is the hae form.

I will read it slowly one more time. Please repeat after me.

Minho is here.

Minho is here.

Minho is here.

Minho is here.

Minho is here.

Minho is here.

As I have explained the overall forms of the relative honorific, I will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orm. First of all, the hasipsio form is the top rank among relative honorific forms. It is also called the hapsyo form for short. The imperative form is expressed as “hasipsio”, the declarative form is expressed as “hapsida”, the interrogative form is expressed as “hapnigga”, and the conjugated form of request is expressed as “hapsida”. However, if you look at the actual usage pattern, when the opponent is a person to be respected, the conjugated form of request or imperative form does not appear often. It is difficult to use the conjugated form of request because it treats the superior person as the same as the speaker. It is also difficult to use the imperative form because of the pragmatic terminology restriction (화용 용어적인 제약) that it is hard to demand any action toward a superior person.

Let's go to eat, grandpa.

Let's go to eat, grandpa.

How do they sound? You can't speak to your grandpa as if you are talking to your friend, right? It's pragmatically very awkward. How about these expressions instead of them?

Let's go to eat, grandpa.

Would you like to go to eat, grandpa?

How would you like to go to eat, grandpa?



The hao form is the second-highest honorific form. It is a general honorific style, not the most honorary term. It is used for people who should be respected in terms of age and social status, but for whom I do not need to show the utmost respect. Therefore, it has the characteristic that it does not give a very polite feeling. In modern Korean colloquial style, the hao form tends to be used infrequently because the hao form is preferred. However, it is still widely used in the spoken language of older generations.

Where are you going?
I will swing by the market real quick.
Would you like to go with me?

Like this, “o” and “so” are mainly used in the hao form. In modern Korean, the hao form appears specifically in written form. You will often see the following sentences in Korean textbooks or exams.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Please choose the correct answer.

Like this, the hao form is also used in the instruction of the exam questions. Although the hage form is used by seniors toward juniors, it does not disrespect the listener according to the hierarchy of words. It is one of the relative honorific methods that respect the listener. It is characterized that it shows respect toward the junior. Therefore, the pre-final ending is often used with it. The hage form is mainly found in spoken language form during an informal conversation. It is expressed in the form of a special sentence ending. The general form is expressed as “ne” and “dane”, and the interrogative form is expressed as “na” and “eunga”. The conjugated form of request is expressed as “euse” and “eusena”. The imperative form is expressed as “ge”.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I arrived yesterday.
I feel very good.
What's new with you recently?
How is the company?
Let's meet more often from now on.
Let's go on a trip together.
Please come this way.
Help yourself.

You can see that there are various hage forms. The haera form is the lowest form among the relative honorific methods. In general, it is used toward the junior or people in the similar rank in spoken language. In written language, it is used for an



unspecified majority. The haera form is after the imperative sentence ending. Haera is a form used for direct order and appears mainly in spoken language. “Hara” is found instead of “haera” in written language such as slogans and mottos.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spoken language and written language. Let's take a look at some sentences.

Does Minhø live in Korea?

Hey, Minhø! Let's visit South Korea and have fun.

Minhø, go to school.

Go to school!

“-ni” is an interrogative ending that is often used in verbs and adjectives without an allomorph. “-ja” is a conjugated ending of request. The imperative ending has many different allomorphs. “go (가거라)” is a direct imperative, while “go (가라)” is an indirect imperative. The haeyo form is called the informal honorific form (두루높임체). It is used in informal situations along with the hae form of the informal addressee-lowering. It's mostly used in casual situations where you don't need to be very polite to the other person, such as spoken language in informal situations. The haeyo form also appears as a form of sentence-final ending, and it is made by adding “yo”, an auxiliary postpositional particle, to the hae form sentence-final ending. The above-mentioned hae form is an expression that can be used between people of equal rank, such as friends, or by an older person to a lower-rank person. It is mainly found in spoken language and belongs to an informal tone. The sentence-final ending of the hae form is made by excluding “yo” from the sentence-final ending of the haeyo form. It is a relative honorific type that is almost similar to the level of the haera form or shows slightly more respect than that. Let's see some sentences showing haeyo and hae forms. First, they are haeyo form sentences.

I eat bibimbap.

I watch a movie.

I meet a friend.

The following are hae form sentences.

I eat bibimbap.

I watch a movie.

I meet a friend.

It's easy because you just need to add or remove “yo”, isn't it? So far, we have reviewed the Korean honorific system in detail. Isn't it complex? It can be said that Korean culture, which emphasizes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is reflected in the language. We have studied hard again.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The Fourth Session | Terms of Address and Terms of Reference

Today, we will study Korean culture by learning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Address terms are used to address an object. In other words, they are expressions used to address the other person in the conversation. Reference terms are words that refer to something. During a dialogue, it refers to himself, the other party, or a third party. Have you ever seen a scene like this in a Korean movie or drama? When ordering food at a restaurant, people often call the restaurant owner “uncle or aunt”. Is that customer really the customer's uncle or aunt? If you do not know the meaning of address terms or reference terms, you will have a problem in communication because you cannot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alogists or the content of the conversation. Have you experienced that, when speaking in a foreign language, you can communicate even if your expressions or grammar are not perfect? However, since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show how the speaker thinks and treats the listener, misusing them can lead to misunderstanding. Therefore, we are going to study the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of Korean in detail and look at the Korean culture contained in them today. Let's have fun studying them.

Sometimes a word is used as an address term and reference form, and sometimes it is not. Let's see some examples.

Father, when are you living?

Minsu, when is your father leaving?

The father in the former sentence is an address term, and the father in the latter sentence is a reference term. In this case, the father is used the same. However, old mother (“노모”) is different. Here are examples.

When does your old mother (“노모”) leave?

The old mother (“노모”) leaves in the afternoon.

In this case, as I said earlier, the old mother is not used as an address term. It can be used only when referring to someone. Please use it carefully. Before we get into the details, let's take a big look at the overall scope of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The scope of appellation or name according to human relationships can be divided into between family members and between non-family members. First, in the case of family and relatives, family address terms are used. You just call your father as father and your older brother as an older brother. However, the people you meet in society can be divided into those who have titles or positions and those who do not. If you have a title, you can address the person by title. You can address a person like “Mr. president, Mr.



teacher, and Mr. professor”. However, we may use family address terms for people who do not have titles, as we saw in the previous example of calling the restaurant owner “uncle or aunt”. However, you shouldn't use family address terms for everyone. I'll discuss the overall content in detail later. First, let's take a closer look at family address and reference terms. We all meet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from young and learn who they are and how to address them. As people grow up, they understand human relationships and use appropriate address terms.

Let's start with father. There are many ways to call your father in South Korea. They are slightly different in meaning. Old literature shows that there are over a hundred words referring to father. Isn't it amazing? Let's look at some of the words Koreans are currently using. I will read them first.

There are many:

Abouji (father), abounim (father), abba (father), chinjung abouji (married woman's father), sunchin (deceased father), gachin (father),

and so on. In modern Korean, address terms have become simpler than before. Still, these address and reference terms are a little difficult even for Koreans. Since it is based on Korean culture that values mutual relations, Even Koreans may not know this cultural background in depth. The first address terms for father are abouji and abba. Abouji is usually used in formal situations or in public. It's good to teach children to use abouji even in situations where you don't need to be formal. Abba can also be used. Gachin is an expression of honoring one's father to others, but it is not used often these days. And when a woman refers to her father to her husband, she calls him abouji or chinjung abouji. Like Busan abouji, there are cases of adding the wife's hometown in front of it. And, if a woman has a child, she can refer to her father as Minsu's maternal grandfather by putting the child's name. When a man indicates his father to his wife and wife's family, he refers to him as abouji. Of course, if a man has a child (Sujin), he may refer to him as Sujun's grandfather. Moreover, when you refer to your deceased father to your mother, grandfather, and grandmother, we can refer to him as your father as you did when he was alive. You may refer to him as abounim, but you may also use abouji. Sunchin is used when referring to my deceased father to others. However, sunchin is sometimes used to refer to a living father. Sometimes, someone else's father is called sunchin as well.

Next, what words would refer to mother? Let me read them first.

Eomeoni, eomeonim, eomma, mochin, seonbi, seonja.

In formal situations or official occasions, eomeoni is usually used. It is preferable to call or refer to mother as eomeoni even in informal situations, and you may address her eomma. Mochin is a representative word for respectfully referring to mother. “Seonbi” and “seonja” are used to refer to a deceased mother, but these expressions



are rarely used these days. Raising and lowering, my family members and other people's family members, living and deceased people, etc. Isn't it interesting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expressions for the same subject depending on the situation?

From now on, I will talk about the unique meaning of family address terms. Eonni (older sister) is an interesting expression. When I am a woman, eonni refers to a sister who is older than me. However, when a young junior, who is not blood-related, or an employee who sells goods at a store is a woman, people call her eonni. In some cases, an older person may call a younger person eonni. The same goes with hyung (older brother). People often call others, who are not their family members, hyung or hyungnim. This phenomenon shows a linguistic culture that has been established in Korean society, which was an agricultural society, due to settlement life. While people maintained a settlement life, a strong family-like bond was formed between the members who stayed in one place. Therefore, they could recognize each other well without addressing each other by names, and they used family address terms. This phenomenon is still present in modern Korea. That is, people broadly use family address terms for people who are not family members.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First, linguistically, the Korean language often omits subjects, so it is hard for strangers to address each other. In these cases, people reveal familiarity by using comfortable family address terms. At the store, the clerk may say to the customer, "Father, mother, please try this on" or "Brother, you look great in it." Second, it arises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lthough large corporations have well organized according to ranks or positions, people sometimes use family address terms in small companies, stores, and markets. For example, you might say, "Auntie, are you coming to work tomorrow?" Third, it is because of the Korean culture, which is socially reluctant to address others by their names. For example, in a hospital, a nurse says to an elderly patient, "Grandpa, is this your first visit to our hospital?" Fourth, for psychological reasons, people try to maintain the strong bond of traditional society. In South Korea, there are many gatherings to maintain the bond, such as clubs and reunions. Even at such meetings, people call each other by family address terms to confirm their familiarity.

What I have mentioned so far may not have been specifically learned when we were learning Korean. It is said that they are living words embedded in Korean life. I cannot exclude the utilization of "aunt", which I introduced earlier, among the unique family address terms. An aunt means a mother's sister, implying a very close relative. In Korea, an aunt may be used to refer to a mother of a friend, a waitress in a restaurant, a nanny, or a housemaid. It is also used to call people you met at the mart or market. Unless it is a very formal or official situation, neither the listener nor the speaker will feel very awkward. A funny fact is that you may call a man an uncle in the same situation, but it is less frequently used than an aunt. It may be related to the general tendency of feeling more comfortable with the mother's family. It is used more comfortably because of the familiarity coming from the feeling of a mother's siblings. However, it is disrespectful to call someone an aunt if you have a public relationship

with the person or if the person has a professional occupation. It can also be offensive if it is used to address an unmarried woman. Since it refers to your mother's siblings, it is recommended to use it for someone who is somewhat older than the speaker. Isn't it fun to use hyung (older brother) or eonni (older sister)? Both are used in a friendly way to address an older person who is not blood-related. It is often used to refer to school seniors or co-workers in a friendly way. Although eonni can be used for restaurant workers with no personal relationship or in a market, hyung is usually not used. This time, we will study address terms at work in detail. Nowadays, most people spend more than half of their day at work. At work, people meet many people, and their interests are intertwined with each other. Therefore, language etiquette must be exercised very carefully at work. First of all, there are various ways to call or refer to the boss, such as Mr. Kim, Mr. Minsoo Lee, Senior Park, Senior Sujin Park, Mrs. Min, and Mrs. Younghee Min. If a boss has a title, you shall address and refer to the person by adding "nim" to the title, such as gwajang-nim and bujang-nim. And if there are many managers or department heads in one place or if the person is a senior in another department, you can address or refer to the person by adding the department name or the person's name in front of the title, such as chongmubujang-nim or Kim Mijung bujang-nim. When calling juniors, you can call them by their titles and their surnames such as Manager Lee or Team Leader Park. Subordinates who do not have a title or a position, such as interns and part-time employees, can be called by adding "Mr." to their full name, such as Mr. Cheolsoo Lee. You may have heard the term -ssi (Mr. or Miss.) a lot. -ssi, which is frequently used between friends and co-workers, means a co-worker or a peer, and it doesn't mean subordinates. I hope you don't get it wrong. There are times when coworkers and classmates need to consider their age in addition to calling them by adding "ssi". At work, even if employees have the same position, people sometimes address an older person by adding "nim" to the title such as "Kim gawjang-nim". However, some companies have changed titles to change the vertical organizational culture in recent years. It has been changed to add "nim" or "pro" to the end of the name or use an English name even if people are in different ranks. We will have to keep watching to see if the atmosphere or culture will gradually change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language.

Lastly, let's take a look at the new changes in address terms. First, "gogaek-nim" was created and has been used more. This appellation started at a famous department store in South Korea, and it has spread to telemarketing, home shopping, and service industries. However, it seems that gogaek-nim is not used often in the traditional marketplace or small stores. Second, position address terms have been spreading. Position address terms such as "teacher, madam, president, and student" have spread and been used as general address terms for customers in the service industry. Teacher (seonsaeng-nim) is often used to respect those who are office workers even if they do not work at a school and teach students. Although some people criticize that honorific terms are used too excessively, some view it positively as an expression of respecting others. Next, "jagi" a second person pronoun, is sometimes expanded and used. You've



probably heard it a lot. “Jagi” is generally used to show intimacy between a relatively young man and woman. However, it is occasionally used by employees toward customers in clothing stores and hairdressing salons. It is usually used by female speakers. However, there i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person who hears the address terms, not the person who uses them. Results showed that listeners generally preferred “son-nim” to “gogaek-nim”. Moreover, the older people preferred “teacher, sir, madam, and mother’. It was found that “eonni (older sister)”, used to refer to customers, was not preferred, and people preferred “teacher” rather than “uncle and president”. So far, we have carefully reviewed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in Korean.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he system, Korean society may place great importance on social relations. Since we have studied the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today, I hope you can use them when meeting and forming a relationship with Koreans. I also believe that it will be a good tip to think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between your country and South Korea for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e Fifth Session | Greetings in Korea and Closing

your country? Hello, Nihao, Konnichiwa, Bonjour, Chao, or Annyunghaseyo? There are various ways. Let's take a quick look at several greetings that contain culture. Greetings cannot be separated from our language life like honorifics and address terms. For the sake of formality, people say, "Let's get together sometime!" In everyday life, people always say thank you or I'm sorry with appropriate facial expressions or bowing to express gratitude or regret.

Let's take a look at some greetings for each situation. Daily greetings can be divided into morning or evening depending on the person you meet. "Annyunghaseyo" is typically used regardless of time. "Annyunghi gaseyo" is usually used when parting. When parting, people sometimes say, "Let's have dinner later" or "Let's grab a drink later." These greetings require a cultural background.

Koreans believe that eating is important to maintain relationships. So, they are social greetings with presuming another gathering in the future. When you meet someone at work or school at lunchtime, you may greet the person by saying "Did you have lunch?" or "Have you eaten?" instead of "Hello". This is a simple Korean-style greeting, not asking whether you have really eaten or not. This also reflects Korean culture that emphasizes eating for maintaining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ese greetings is to maintain friendship and to express constant interest in the other person. In this case, you can lightly answer "yes" or answer by asking back "yes, did you have lunch?"

When people meet someone on their way somewhere, people often greet each other with "Where are you going?" People say, "Where are you going?" to know where the other person is really going. However, this expression does not intend to know where the other person is going. You don't need to give an exact answer. It is often used habitually as a greeting expression to express interest in the other person. You may answer the greeting with "yes" or "hello".

You may greet a stranger by saying, "cheoeum boipgekseupnida (nice to meet you)", "manaseo bangapseupnida (nice to meet you)", and "malseum mani duleukseupnida (I've heard about you a lot)". For those whom you haven't seen in a long time, you may greet them by saying "jungmal oraekmanineyo (It's been a long time since I've seen you)", "geudongan annyunghaseokseupnigga (How have you been)?", "geudongan jal jinaesetseupnigga (How have you been)?", and "yojeum eottokke jineseyo (How are you these days)?" When a guest is leaving your home, you may say, "Annyunghi gasipsio (Goodbye)." If it is your close friend, you can also say, "Annyunghi gaseoyo (Goodbye)." If the person is your junior, you can say, "Jal ga (Goodbye)" or "Jal gageora (Goodbye)". If the person is your senior, you may say, "Salpeogasipsio" on some occasions. When you leave work earlier than others, you can greet the remaining people with "Meonjo gagekseupnida (I am leaving first)" and "Naeil boipgetseupnida (I will see you



tomorrow).” You can also say “Meonjo nagagekseupnida (I am leaving first)” and “Meonjo deuleogagetseupnida (I am leaving first).” I can often see people greet their superiors by saying, “sugogasipsio (Work hard),” when leaving work. Although young people do not think that it is inappropriate as a greeting, it is not desirable to use it with superiors. Instead, you may say, “Nogoga maneusekseupnida (You’ve worked hard)”, “Aesseusekseupnida (You’ve put considerable efforts)”. However, you can greet with “Meonjogapnida. Sugohaseoyo (I’m leaving first. Work hard)” toward co-workers and juniors.

We have studied the Korean honorific system, address terms, and reference terms. Which impressed you the most? Shall we read sentences again to review the honorification we have studied today? Please repeat after me.

Do your parents live in Korea?

Did the president go to the office?

Minho wrote a letter to his grandmother.

My father is sleeping.

A grandmother is eating.

My mother is in the restaurant.

Does your country have an honorific system? How about your address and reference terms? How about thinking about them and introducing them on your social media? After this lecture, please solve the quiz well and review the contents of this lecture. Since useful materials are provided, please review them as well. The next lecture will discuss foreign words in Korean. Foreign words refer to words that come from abroad and are used like Korean because they are integrated into Korean. Therefore, you'll talk about many words that are familiar to you. This will conclude today's lecture. See you next time. Thank you!

중국어 스크립트 | Chinese Script

第1课时 | 导入

同学们大家好，今天已经是第四节课了。我们先来复习一下学过的内容。上节课我们了解了韩国人的民族性和情义。大家还记得情感，腌制辛奇，我们，义气的概念吗？我们还学习了韩国的国旗太极旗，国花木槿花，国歌爱国歌等内容。还了解了造福人类的思想和韩国的孝道。大家对其中哪一个印象最深刻？现在大家能更深刻地理解韩国文化和韩国人的情感、思想了吗？希望大家认真看问答题和学习资料。认真地看每节课的资料一定会对大家有帮助的。

以上节课的内容为基础，今天我们来了解一下韩国语言文化中最重要敬语法和称谓。首先让我们想一想。在跟比大家年长的人用韩国语对话时，大家会怎么说？会怎样称呼对方呢？有什么特别的词汇吗？韩国语中有根据对方的年龄、地位、与话者的亲密度不同，说法方式不同的规则，这就是韩国语中的敬语法。

与其他语言相比，韩国语中的敬语法尤为发达。所以韩国语中会存在一些大家看起来很陌生的现象。即使将看似正确的语法和词汇连起来造句，也可能是错误的表达方式。例如，对老师说‘밥 먹어 (吃饭)’，虽然能知道是什么意思，但这是错误的表达方式。因为‘밥 먹어 (吃饭)’是非敬语，所以按照敬语体系应该说‘식사하셨어요? (您用餐了吗?)’，‘밥 드셨어요? (您吃饭了吗?)’。在韩国，遵守说话的人之间的语言礼节非常重要。所以在初次见到别人，与他建立关系后会询问对方的年龄。因为只有知道对方的年龄才能知道该使用什么样的语言表达方式。除了年龄以外，就像刚才说的一样，根据职位、亲密度等也会有所不同。今天我们将要分析韩国语的敬语体系，并谈谈其中蕴含的韩国文化。我会为大家详细地介绍韩国语中的敬语体系。

然后，我们要了解韩国语的称谓。大家肯定经常在韩国电视剧或电影中看到对不是家人的人使用亲人称呼的场面。比如叫并不是亲人的人“哥哥”，“弟弟”。一些外国学生在学习韩国语时觉得这样的称谓很难。了解韩国语的称谓能有助于大家进一步了解韩国文化。今天和老师一起认真地学习吧。那我们一起来读一下今天的核心单词吧。老师先读，请大家跟读。

敬语法

主体敬语

客体敬语

听者敬语

词汇敬语

称谓语

长者

官位等级

我再慢慢地读一遍。希望大家试着跟我一起读。

敬语法

主体敬语





客体敬语

听者敬语

词汇敬语

称谓语

长者

官位等级

等等！让我们来看一个有趣的视频吧。

视频：文化之间相遇，文化聚会 1篇

<https://www.culture.go.kr/culturetv/culturePdView.do?idx=6197>



第2课时 | 敬语法的体系（主体敬语和客体敬语）

首先来看一下敬语法的定义。在字典上给出的敬语法的说明是‘用于表现对某个对象的尊敬态度的语法功能’。是指在我们说话时，用于表现出对听者或对某个对象的尊敬而使用的所有表达方式。敬语法也叫尊敬法。敬语法有多种表现形式。大致可分为三种。

第一，主体敬语，第二，客体敬语，第三，听者敬语。除此之外，还有用特定的词汇来表现尊敬的方法。尊敬的方法多种多样，这节课我们先来学习主体敬语和客体敬语，下节课我们学习听者敬语和词汇敬语。

首先我们来仔细了解一下主体敬语法。我来读一遍下面的句子。아버지께서 회사에 가신다.（爸爸去公司。）话者在对主语所指的主体表示出尊敬，即说话人对句子中做出谓语的动作或表现出的状态的那个对象表示尊敬。简单来说，就是对句子中去公司的爸爸表示了尊敬。这些都叫做主体敬语。在这个句子里，是用‘爸爸’后面的“께서”和谓语部分的非词末词尾“-（으）시-”来体现的。我们来读几个使用了主体敬语的句子吧？请大家慢慢地跟我读。

父母去旅行了。
老师来学校了。
爷爷去银行。
部长要见客人。
奶奶教韩国语。

请再跟我读一遍。

父母去旅行了。
老师来学校了。
爷爷去银行。
部长要见客人。
奶奶教韩国语。

敬语的原则是直接把敬语标志或敬语方式用在需要尊敬的对象上。有时还会通过尊敬身体的一部分或尊敬与需要尊敬的对象有关的其他人、其他事物的方法间接尊重应该尊敬的对象。我的妈妈头发很长。这个句子里“어머님의 머리”指的是妈妈的头发。句中尊敬妈妈的头发就是间接尊敬的情况。听说老板有两个子女呢。这里是使用了尊敬老板子女的方法尊敬老板。我爸爸的单位很远。这个句子尊敬了爸爸的单位，也是间接尊敬法。这种间接尊敬主体的方法，大家觉得很复杂吗？虽然有点复杂，但在韩国这是非常日常的表达方式。这些都是想要学好韩国语和韩国文化必经的过程。

有时，为了照顾听者的感受，也有对应该使用尊敬的对象不使用敬语，或者对不需要尊敬的对象使用敬语的情况。奶奶，妈妈来了。这是孙子或者孙女告诉奶奶妈妈来了的句子。在儿子或女儿的立场上应该对妈妈使用尊敬语，但是由于听者是奶奶，所以用的不是敬语‘오셨어요’而是‘왔어요’。像这样对本应尊敬的对象不使用敬语的方法叫做“压尊法”。

反之，奶奶也可能会这样问孙子：你妈妈什么时候来？由于听者是孙子，考虑到孩子和妈妈的关系，



奶奶不会用'들어오니?'而会用敬语句型问'들어오시니?'. 像这样因为照顾听者的感受, 对本不应该尊敬的对象使用敬语的方法叫做“加尊法”。但是在2010年前后, 使用压尊法的表达方式逐渐减少。也就是说比起“할머니 어머니 왔어요?”, 使用“할머니 어머미 오셨어요”这样的表达方式更自然。因此, 国立国语院在2011年发行的《标准语言礼仪》中, 将两种情况都认定为标准语。所以在学校的教学和普通的韩国语教室里都不会严格地教压尊法。但是这里有个需要注意的地方。在职场生活中基本不会使用压尊法。普通职员对老板说话时最好说“老板, 金科长今天缺勤了”。还有一个值得注意的地方。敬语通常取决于说话人的态度。客观来说, 即使应该尊敬, 也有可能不用敬语; 即使没有必要尊敬, 也可能会使用敬语。我们来举个例子吧。

世宗大王创造了韩文。

世宗大王创造了韩文。(敬语形式)

两个句子都是可以使用的句式。像第一句一样, 客观地叙述历史事实时可以不使用敬语。但是如果个人角度上喜欢世宗大王并对世宗大王很有兴趣, 可以像这样用敬语说'만드셨다'。到目前为止, 我们整理了主要通过“께서”、“-(으)시-”来表达尊敬的主体尊敬法。还有尊敬句子叙述主体的方法吧? 不能说“어머니가 회사에 간다(妈妈去公司)”, 而要说“어머니께서 회사에 가신다(妈妈去公司)”。

下面我们来看看客体敬语。使用客体敬语时, 客体必须是比使用听者敬语的对象更为尊贵的对象。在脱离身份社会的现代韩国, 所谓的尊贵的对象是指年长的、亲属间的辈分高的或职场中地位高的对象。这三个标准偶尔也会有冲突, 这时要根据情况来判断。在现代语言生活中, 几乎不怎么使用客体敬语。因为客体敬语不是尊敬主语, 而是表示尊敬对主语以外的句子成分所指示的对象。这个解释有点难吧? 我们来看一下句子。孩子跟爷爷问好。这个句子里孩子跟谁问好? 是的, 跟爷爷, 跟爷爷问好。句中孩子问好的对象做为句子的状语, 它指的对象是爷爷。所以为了尊敬爷爷而用了表示尊敬的“께서”。客体敬语主要是对宾语、状语等句子成分所指示的对象进行尊敬。通常可以通过副词格助词“께”来表达。我们来读一下句子吧。希望大家也跟着老师慢慢地读一遍。我给科长打电话了。孩子们, 跟老师问好吧。秀智给教授写邮件。民宇给父母送了礼物。我从老板那里听说了那件事。我在听金老师的课。我再慢慢地读一遍。请大家也慢慢地跟读。

我给科长打电话了。

孩子们, 跟老师问好吧。

秀智给教授写邮件。

民宇给父母送了礼物。

我从老板那里听说了那件事。

我在听金老师的课。

像这样用于客体尊敬的“께서”不是词汇要素, 而是语法要素。但是由于助词“께서”只能用在状语后面, 所以对宾语表示尊敬时只能通过词汇方法来表示。下节课我们来学习词汇敬语。

第3课时 | 敬语法的体系 (词汇敬语和听者敬语)

到目前为止，我们分析了主体敬语和客体敬语。但我说过，在客体敬语中，对宾语的尊敬应该用词汇敬语法。事实上，主体敬语和客体敬语都可以用词汇敬语法。这节课我们先学习词汇敬语再学习听者敬语。主体敬语和客体敬语中都会出现词汇敬语法。词汇敬语法是指使用特殊词汇尊敬主体或客体。当然，如果是句子的主体和听者一致，或者客体和听者一致的情况，这种词汇敬语的使用会对听者也进行尊敬，所以也属于听者敬语。但是一般来说，使用词汇的敬语法基本上属于主体敬语和客体敬语。作为敬语句式使用的词汇大体上以名词和动词为主。偶尔也会使用代名词、形容词、副词或感叹词。词汇敬语中使用的名词，主要是在一般名词后加上尊称后缀'-님'形成派生词。我先来读一下句子。

父母在旅行。

您的儿子做什么工作？

有我们之前看过的句子吧？在父母，儿子后加上尊敬词缀'-님'就变成了敬语词汇'부모님, 아드님'。这是对主语进行了尊敬。

我给科长打了电话。

什么样的衣服适合您女儿呢？

这里也有我们前面看到过的句子。这两个句子是在表示职位的名词科长或女儿后加上尊敬词缀'-님'，实现对客体进行尊敬的例子。像这样加上'-님'形成尊敬词汇的例子在亲属名称中很常见。有'儿子，女儿，姨妈，哥哥'这样的称谓吧。在亲属称谓后加'-님'时，像儿子，女儿这样有'ㄹ'收音的情况时，会出现'ㄹ'收音的脱落现象。姐姐，儿媳，爷爷这样的称谓会有词汇形态的变化。姐姐，儿媳，爷爷这样的称谓会有词汇形态发生变化的情况。姐姐(누나)这个词中的나会脱落，后面加上'-님'变成敬语词汇姐姐(누님)。儿媳(며느리)中的'니'脱落，在后面加'-님'，变成敬语词汇儿媳(며느님)。爷爷也是这样，'지'脱落，在后面加上'-님'变成敬语词汇爷爷(할아버님)。而且像教授、院长、老板一样，是在职位或职务名称后面也加上'-님'，表现尊敬。像客人、夫人一样表示社会关系的名词后面也可以加'-님'。但是也有一些名词即便不加后缀'-님'也具有尊敬的含义。我指的是'家，饭，贵校，贵公司'这样的词。这些词可以用在主体敬语，客体敬语和听者敬语中。家(댁)是家(집)的敬语，饭(진지)是饭(밥)的敬语。贵校(귀교)是尊敬对方学校的叫法，贵公司(귀사)是尊敬对方公司的叫法。

接下来，还有不用'-님'而用'분'来表达的敬语。친구분, 동료분, 남편분, 환자분(朋友，同事，丈夫，患者)等，都是对'분'前面的名词进行尊敬的用法。与'님'一样都是常用的表达方式。在代名词中，尤其是在第二人称代名词中，对'你'表示尊敬可以使用'그대, 당신, 어르신(你，你，老人家)'等。复数型是大家都知道的'여러분(大家)'。여러분, 어르신较为常用，'그대'在日常对话中不常使用。口语中使用'그대'会比较别扭。'你(당신)'这个单词要根据情况小心使用，在与陌生人吵架时，是用来贬低对方的意思。

在主体敬语法中，很多动词都可以用作敬语词汇。睡觉'的敬语是'주무시다'，'吃'的敬语是'자시다, 잡수시다'。在'的敬语有'계시다'。在客体敬语中动词'带领'的敬语是'모시다'，'见'的敬语是'뵙다, 뵈다'。告知'的敬语是'아뢰다'，'问'的敬语是'여쭙다, 여쭙다'。给'的敬语是'드리다'，'收'的敬语有'



받잡다'等。我想这应该是大家都听过的单词吧。形容词'生病(아프다)'的敬语词汇是'편찮으시다'。副词中'손수'是'直接(직접)'的敬语词汇。感叹词中'네', '예'是'是(응)'的敬语词汇, '아니요'是'不(아니)'敬语。现在我们把这些敬语词汇放在句子里来熟悉一下。老师先来读一下, 请大家跟读。

爷爷正在睡觉。
奶奶在吃饭。
阿姨最近在韩国。
我向老人家请教了我的疑问。
在院长家见到了院长和夫人。
我把您的朋友送到您府上后再告诉您。

老师会慢慢地再读一遍, 希望大家能观察一下敬语词汇是怎样变化的。

爷爷正在睡觉。
奶奶在吃饭。
阿姨最近在韩国。
我向老人家请教了我的疑问。
在院长家见到了院长和夫人。
我把您的朋友送到您府上后再告诉您。

好, 非常好。看到这么多敬语法, 大家能看出韩国语的敬语体系很复杂吧? 大家应该能理解韩国有多么重视敬语文化了吧。

下面我们来学习听者敬语。听者敬语是对对话参与者进行尊敬的方法。听者敬语法主要体现在句子的终结要素上。我们来看句子, 学习一下听者敬语的体系。说话人决定听者在与自己的关系中应该何种程度的尊重, 其态度会反映在句子的终结词尾上。听者敬语存在于很多种语体中。如果听者是应该受到极大尊敬的对象或者是在正式场合进行的对话, 会使用'正式体尊敬阶(하십시오체)'。但是一般情况下通常会使用'非正式体尊敬阶(해요체)'。特别是, 由于'非正式体尊敬阶(해요체)'是用来表示尊敬对方的, 是最具代表性的口语非正式体, 因此使用范围非常广。非正式体基本阶(해체)和正式体基本阶(해라체)不对对方进行尊敬的语体。与正式体基本阶(해라체)相比, 非正式体基本阶(해체)更广泛的用于口语非正式场合。非正式体基本阶(해체)一般不会表现出非常贬低含义, 但是正式体基本阶(해라체)会给人非常贬低的感觉。所以如果不是非常亲密的关系或者对方是年纪非常小的晚辈, 最好不要用。

正式体对等阶(하계체)和正式体对等阶(하오체)是在特殊情况下使用的听者敬语等级。正式体对等阶(하계체)用在年龄层较高的群体中年长者为了礼遇年龄较小的人而使用的听者敬语。多为岳父岳母对女婿使用, 老教授对年纪大的弟子使用。礼遇晚辈(年幼者)并对晚辈(年幼者)使用敬语这一点上, 正式体对等阶与其他听者敬语有所不同。正式体对等阶(하오체)是年龄层较高的一代中, 同辈们为了相互尊敬而使用的。也常用于相互尊敬礼遇的夫妻间的对话中。正式体对等阶(하계체)虽然是对晚辈使用的, 但带有尊敬的含义。相反, 正式体对等阶(하오체)是对非晚辈的对象使用的, 但会被认为几乎没有尊敬的含义, 带有一点讽刺的特性。正式体对等阶(하계체)和正式体对等阶(하오체)是很难在年轻人群体中听到的文体。年轻人如果使用这样的语体, 会让人感觉非常古板。但是最近能在很多韩国历史电视剧和电影中看到。在这样的电视剧和电影中经常听到하계체, 하오체吧。我们来看一下句子吧。请大家跟读。

“民浩来了。”这是正式体尊敬阶(하십시오체)。
“民浩来了。”这是非正式体尊敬阶(해요체)。
“民浩来了。”正式体对等阶(하오체)。
“民浩来了。”正式体对等阶(하게체)。
“民浩来了。”正式体基本阶(해라체)。
“民浩来了。”非正式体基本阶(해체)。

老师再慢慢读一遍，请大家跟读。

民浩来了。
民浩来了。
民浩来了。
民浩来了。
民浩来了。
民浩来了。

我们学习了听者敬语中的全部语体，让我们更详细地来了解一下首先正式体尊敬阶(하십시오체)属于听者敬语等级中的最高级。简称尊敬阶(합쇼체)。命令型为 '하십시오'，陈述型为 '합니다'，疑问型 '합니까'，共动型为 '합시다'。但是在实际的使用中如果对方是需要尊敬的对象，那么基本不会使用尊敬阶(하십시오체)中的共动型和命令型。共动型是把需要尊敬的对象与说话人放在同级对待，所以不能这样用。命令型是要求需要尊敬的对象做某事，这在语用范围内来看也是很不妥当的，所以不能这样用。

爷爷去吃饭吧。
爷爷去吃饭吧。

这个句子可以吗？对爷爷说话不能像对朋友一样说话吧？在语用学的角度上看这是非常不合逻辑的。我们换成这样的表达方式如何？

爷爷您去吃饭吧。
爷爷您要去吃饭吗？
爷爷您要不要去吃饭？

正式体对等阶(하오체)是听者敬语中，等级第二高的语体。它不是最高尊称，而是一般尊称。虽然以对方的年龄和社会地位一般来说是应该受到尊敬的，但是对于我来说不是需要极度尊敬的对象，这时可以使用正式体对等阶(하오체)。所以它的特点是不会给人非常恭敬的感觉。在现代韩国语口语体中，正式体对等阶(하오체)逐渐被非正式体尊敬阶(해요체)取代，现在很少使用。即便如此，在年龄层较高的人群中，仍然在广泛使用。

你去哪儿？
到市场去一趟。
你要一起去吗？



像这样的正式体对等阶(하오체)中主要是使用'오'和'소'。在现代韩国语中,正式体对等阶(하오체)主要以书面语形式出现。大家在韩国语教材或考试中也会看到下面这样的句子。

请回答下列问题。

请从下列选项中选出合适的。

在试题的题干中也常用正式体对等阶(하오체)。正式体对等阶(하게체)虽然是长辈对晚辈使用的,但是在语言的等级上它不是降低听者的级别,而是礼遇并抬高听者的一种听者敬语法。其特点就是抬高晚辈。所以经常与非词末词尾同时使用。正式体对等阶(하게체)主要用于非正式场合的口语中。用特别的终结词尾来表示。陈述型中用'네'和'다네',疑问型中用'나' '은가'。共动型用'으세'或'으세나',命令型用'게'。我们来看下面的句子。

我昨天到的。

心情很好。

最近有什么事吗?

公司怎么样?

以后经常见面吧。

一起去旅行吧。

到这边来。

多吃点。

正式体对等阶(하게체)的形式也是很多样的。正式体基本阶(해라체)在听者敬语中的尊敬等级最低。一般在口语中对晚辈或排位相似的人使用,在书面语中则针对非特定的多数对象使用。해라체(正式体基本阶)这个名称取自于命令句终结词尾的形态。해라는在下命令时使用的形态,主要在口语中出现。在口号、标语等书面语中不用'해라',而是用'하라'。也就是说,正式体基本阶在口语和书面语中的形态是不同的。我们来看一下句子。

敏浩住在韩国吗?

敏浩,我们去韩国玩吧。

敏浩啊,去学校。

去学校。

-니'是正式体基本阶(해라체)中常用的疑问句词尾,在动词、形容词后没有形态变化。자'是共动型词尾。命令型有很多变化形态。가거라'是直接命令型,'가라'是间接命令型。非正式体尊敬阶(해요체)也叫一般敬称。它和一般谦称(해체)一起用在非正式场合中。主要用于非正式场合的口语中,在不需要对对方非常恭敬的、较为随意的情况下使用。一般敬称(해요체)也是以句子终结词尾的形态出现,它是在一般谦称(해체)终结词尾后加上补助词'요'而形成的。前面提到的一般谦称(해체)用于朋友之间或同等级的人之间,也可以用于长辈对晚辈,它一般用在口语中,带有一种非正式的语气。构成一般谦称(해체)的终结词尾是在一般敬称(해요체)终结词尾中去掉'요'而形成的。它与正式体基本阶(해라체)尊敬的对象基本相似,但它在听者敬语中是属于基本尊敬的等级。下面我们来看一下一般敬称和一般谦称的句子。首先是一般敬称的句子。



吃拌饭。

看电影。

见朋友。

下面是一般谦称的句子。

吃拌饭。

看电影。

见朋友。

只是有'요'和没有的'요'的差别吧？到目前为止，我们详细地分析了韩国语的敬语法体系。很复杂吧？韩国文化非常重视人与人之间的关系，这样的文化也如实地反映在语言中。这节课大家都很努力。大家辛苦了。



第4课时 | 称谓语和指称语

这节课我们将一边学习称谓语和指称语，一边了解韩国文化。称谓语是指称谓某个对象的词语。换句话说，是指说话的人在称谓对方时用的表达方式。指称语是指某个对象的词语。说话人在说话过程中指代自己、对方或第三者的词语。大家在韩国电影或电视剧中见过这样的场面吗？在餐厅点餐时，经常会出现叫餐厅老板“叔叔，阿姨”的场面。那个人真的是客人的叔叔或阿姨吗？如果不知道称谓语或指称语的意义，就无法准确了解对话双方的关系或对话内容，沟通就会出现问題。用外语对话时，即使表达方式和语法有点错误，也能够理解大概的意思吧？但是称谓语和指称语是表现说话人对听者的看法和态度的。使用不当就会产生误会。所以这节课，我们将详细地学习韩国语的称谓语和指称语，了解其中蕴含的韩国文化。让我们愉快地开始学习吧。

有时同一个单词既可以做称谓语又可以做指称语，但并不是所有的单词都这样，我举个例子。

爸爸，什么时候出去？

民秀啊，爸爸什么时候出去？

前面用的“爸爸”是称谓，后面用的“爸爸”是指称语。这时“爸爸”的用法是完全一样的。但是表示上了年纪的母亲这个含义的“老母亲(노모)”一词却不一样。我们来看一下例子。

老母亲什么时候出去？

老母亲下午出去。

这样的句子不会像前面所说的那样把“老母亲”作为称谓来使用。只有在指称的时候才会使用。需要注意。在分析具体的内容之前，我们先来看一下称谓和指称的范围。根据人际关系，称谓或指称的范围可以分为家人和不是家人两类。首先家人和亲属直接使用家庭称谓语即可，爸爸叫‘아버지’，哥哥叫‘형’就可以了。但是在社会关系中遇到的人，分为有职称或级别的人和没有职称或级别的人。如果有职称，用职称称谓就可以。像是“老板，老师，教授”这样的称谓。但是，没有职称的人，就像刚才的例子一样，就像称呼餐厅老板为“叔叔，阿姨”一样，有时可以使用家庭称谓语。但是不能对所有人使用家庭称谓语。具体的内容我们以后再仔细看。我们先来仔细看看家族称谓语和指称语。我们从小就经常能见到家人、亲戚，并学习那个人是谁，该怎样称呼他，长大后我们开始懂得人际关系，然后根据关系使用恰当的称谓语。

先从父亲开始。在韩国，称呼爸爸的词语很多。在含义上有一点差异。据说，古文献中代表父亲的称谓超过100个。是不是很厉害？下面我们来看看现在在使用的几种称谓。我先来读一下。

爸爸，父亲，爸爸，娘家的父亲，先父，家父

等等。在现代韩国语中，称谓语比以前简单多了。即便如此，这种称谓语和指称语对于韩国人来说也是有点难的。因为称谓语是以重视相互关系的韩国文化为基础的，即使是韩国人，也有可能不知道这样的文化基础。首先称呼爸爸的词有父亲(아버지)，爸爸(아빠)。在应该讲究规矩礼节的情况或正式场合下通常使用父亲(아버지)。在平时不用十分讲究规矩礼节的情况下也是叫父亲(아버지)比较好，但也

可以叫爸爸(아빠)。在别人面前抬高自己的父亲时可以称为家父(가진),但现在不常用了。女人在自己的丈夫面前称呼自己的父亲时可以称为父亲或者娘家父亲。也有像‘釜山父亲’这样,加上娘家地区名称称呼娘家父亲的叫法。如果有孩子的话,也可以把孩子的名字加进去,称为“民秀外公”。男人对妻子和妻子家说起自己的父亲时,就称为父亲(아버지)。有子女的情况也可以用“秀珍爷爷”这样的叫法来称呼。在母亲、爷爷和奶奶面前指称已去世的父亲时,可以直接称为父亲 (아버지)v。除此之外的其他人面前,可以称为父亲(아버님)也可以称为 아버지。“先父”是向别人指称我已去世的父亲时使用的词语。但是也有把活着的父亲称为先父的情况,也有把别人的父亲称为先父的情况。

那么称呼妈妈的词语有哪些呢?我先来读一下。

妈妈,母亲,妈妈,母亲,先妣,

先慈在应该讲究规矩礼节的情况或正式场合下通常使用母亲(어머니)来称呼。在平时不用十分讲究规矩礼节的情况下也是叫母亲(어머니)比较好,但也可以叫妈妈(엄마)。对母亲的郑重称谓中最有代表性的是母亲(모친),提及已去世的母亲时可以称为先妣,先慈,但现在几乎不用了。根据情况不同,要区分尊称或谦称,我的家人和别人的家人,活着的人和去世的人等,即使是同样的对象也有这么多种表达方式,是不是很有趣?

现在我们来谈谈家庭称谓语的独特意义。其中最有趣的是姐姐这个表达方式。如果我是女人的话,姐姐,是指比我年纪大的女性兄弟姐妹。但是在不是真正的姐妹而是年纪小的后辈,或者商店里的售货员是女性的话也可以叫姐姐。甚至还有年龄更大的人对年龄小的人称谓姐姐的情况。哥哥也一样。对不是家人的人叫哥哥,大哥的情况也很多。这种现象是从前处于农耕社会时期的韩国在开始定居生活的过程中,逐渐扎根留存下来的语言文化。在定居生活中,停留在一个地方的成员之间出现了像家人一样紧密的纽带关系。所以他们即使不叫对方的名字,也能认出对方,所以他们可以使用家庭称谓语。但是这种现象在现代韩国也存在。也就是将家庭称谓语广泛地扩大到非家庭成员身上使用的现象。

这里有几个原因。第一,在语言上,由于韩国语经常省略主语,所以陌生人之间对话时会感到很不方便。这时会使用大家熟悉的家庭称谓语,表现出亲切感。店里的店员对客人说:"爸爸,妈妈,试穿一下这个吧。"或者说"大哥,这个很适合你。"第二个原因是产业结构上的特征。大企业具有一定的规模,可以根据职级或职责来称呼,但小规模企业或店铺、市场里会使用家族称谓语。比如说有时会说"阿姨,明天上班吗?"第三,是因为韩国有不愿意称呼别人名字的社会风俗。例如,在医院护士对上了年纪的患者说:"爷爷第一次来我们医院吧?"第四,因为心理原因,想要维持传统社会牢固的纽带感。韩国有很多同好会、同学会等维持纽带感的聚会。在那样的聚会上,也会使用家庭称谓语,确认彼此的熟悉感。

到目前为止我们所讲的内容,在学习韩国语时可能没有具体学过,但在这些东西都体现在韩国的生活中,可以说是活生生的语言。在独特的家庭称谓语中不能少了前面提到过的“阿姨”。阿姨是母亲的姐妹,是非常亲近的亲戚。在韩国,有时把母亲的朋友、在餐厅工作的阿姨、照顾孩子或帮忙做家务的人称为阿姨。也可以称在超市、市场上见到的人。如果不是非常正式或非常严肃的场合,听的人和说话都不会觉得太尴尬。有趣的是,对处于同样状况的男性可以称谓为叔叔,但其频率比阿姨低。这大概与对母亲的家人有更亲密的情感有关。因为对母亲的兄弟姐妹有更浓厚的亲密感,所以使用时更具有亲近感。但是在正式的场合或对从事专业性工作的人使用阿姨的称谓是很失礼的。另外对未婚女性使用也会让人感到很不愉快。母亲的姐妹叫做阿姨,那么以说话人为基准来看的话,这个称谓要对略有一些年纪的人用才可以。使用哥哥或姐姐的情况不也很有趣吗?两个都可以亲切地称呼不是家人的、年龄较大的人。也可以用来亲切地称呼学校的前辈或职场的同事。姐姐可以用来称呼没有个人关系的饭店职员,或在市场上用来称呼顾客来表示亲近。但是哥哥却不能这样用。这次我们来看一下职场中使用的称谓语。如今大部分人一天有一半以上的时间是在职场中度过。在职场上会遇到很多人,这些人的利害关系交织在一

起,所以在职场上要非常谨慎地遵守语言礼节。首先,称谓上司或指称上司的话有金老师、李民秀老师、朴前辈、朴秀珍前辈、闵女士、闵英姬女士等多种多样。有职称的上司在职称上加上"님"称谓为科长、部长。还有科长或者部长们聚在一起或者有其他部门的上级的情况下像总务部长或金美贞部长这样,在头衔前面加上部门或人的名字,明确地指称或称呼即可。叫下级的时候也可以像李科长、朴组长一样,在姓后而加上职称即可。像实习职员、兼职职员一样没有职务和职称的下级人员,就像李哲洙(이철수 씨)一样在姓名后加上"씨"来称呼即可。虽然大家应该也听过很多次'某某 씨'这句话,在朋友或者同事之间使用的"某某 씨"不是指下属,而是指同事或者同级者。所以请大家不要误会。同事或同级者之间除了加"씨"的称谓方法外,有时还要考虑年龄。在公司,即使职位相同,对年龄大的人也会在其职级后加上"님",称谓为"金科长(김 과장님)"。但是最近企业为了改变这种纵向的组织文化,也会提倡改变称谓方式。科长、部长等职级的差异改为在名字后面加上"님"或"프로",或使用英语名字来称呼他人。随着语言使用的改变,氛围和文化是否也会逐渐发生变化,需要继续观察。

最后来看一下称谓语中出现的新变化。首先,"顾客"一词正在生成并扩散。该称谓起源于韩国著名的百货商店,并扩散到了电话营销、电视购物和服务行业。但是传统市场或小店好像很少会使用顾客(고객님)这一词。第二个是职称称谓语扩散的现象。职称称谓语"老师、夫人、社长、学生"等词语在服务业扩散为对客人的普通称谓。在学校工作即便不是教学生的老师,而是做事务性工作的人,但为了尊敬对方也会经常称其为老师。虽然有人批评这种现象是过度使用尊称。也有人从积极的角度上认为这是想要尊重对方的表现。其次是第二人称代名词"亲爱的(자기)"一词被扩张使用的情况。大家应该听过很多次了吧。"亲爱的"一般是比较年轻的男女之间为了表现亲密而使用的称谓。但是在服装店、美容院,工作人员对客人使用的情况时有发生。一般来说女性话者较多。但是有一些专门研究称谓语听者立场的研究,研究结果显示,比起"顾客(고객님)",听众们更喜欢"客人(손님)"。而且上了年纪的人更喜欢"老师、老人家、夫人、母亲"等称谓。调查显示,指称客人时使用的"姐姐"好感度较低,比起"大叔,老板"这些称谓,"老师"这个称谓更受欢迎。到现在为止我们仔细地了解了韩国语的称谓语和指称语。仅从这个复杂的体系就可以看出韩国是非常重视社会关系的。借此机会我们确认了称谓语和指称语,希望大家能在遇到韩国人并与之建立某种人际关系时灵活运用。而且我认为将韩国语的称谓语和指称语与大家的本国语中的称谓语和指称语进行比较,并思考其相似之处和差异也是学习韩国语和韩国文化的好方法。

第5课时 | 韩国的问候语以及收尾

你好。这节课我们来简单了解一下韩国的问候语。在同学们的国家大家都怎样打招呼？헬로우, 니하오, 곤니찌와, 봉쥬르, 차오, 안녕하세요? (你好)。有很多种。下面简单介绍一下问候语中蕴含的几点文化内容。问候语就像敬语法和称谓语一样,是我们语言生活中不可或缺的因素。我们经常会说些客套话,例如:"什么时候一起吃个饭!"在日常生活中表达感谢或歉意时,总是会与面部表情或低头的动作一起,说谢谢,对不起。

根据情况来看几个问候语。日常的表达方式可以根据见面的人不同或见面的时间是早晨还是晚上来区分。跟时间无关,见面的时候主要用"안녕하세요?(你好)"来打招呼。临别时通常使用"안녕히 가세요.(请慢走。)"。临别的时候有时会说"以后一起吃个饭吧"、"什么时候一起喝酒吧"等。这样的问候语需要进行一个文化背景的说明。

韩国人认为吃东西对维系关系很重要。所以这是相约下次见面的社交性问候语。午饭时间在公司或学校见到对方时,比起"您好",也常说"您吃午饭了吗?"、"吃饭了吗?"这不是真的在问有没有吃饭,而是简单的韩国式问候。这也反映了韩国这种认为吃东西对维系关系很重要的韩国文化。目的是通过这样的问候来表达维系友情的意图和对对方一直以来的关心。这时对方会简短地回答"是",或者再次以问代答说"是,您吃午饭了吗?"

在路上偶然遇到的时候,经常会简单地问"你去哪里?"真的想问对方去哪里时,虽然也会说"你去哪里",但这句话并不是因为真的想知道对方去哪里而问的。这并不需要准确的回答,这样的表达方式只是习惯性地用来表示对对方的关心。听到问候后,简短地回答"嗯"或"你好"就可以了。

对初次见面的人说"初次见面"、"很高兴见到你"、"久仰大名"等。对好久不见的人说:"真的好久不见了", "这段时间过得好吗?" "这段时间过得好吗?", "最近过得怎么样?"然后在家送客时会说"안녕히 가십시오.(请慢走)".如果是亲密的关系,可能会说"안녕히 가세요.(再见)".对比自己小的人说"잘 가.(走好)", "잘 가거라.(走好)";特殊情况下,对长辈说"请小心慢走"也可以。在职场比其他人提前下班时,对留下的人说"먼저 가겠습니다.(我先走了)"和"내일 뵙겠습니다(明天见)".也可以说"먼저 나가겠습니다.(我先走了。)"和"먼저 들어가겠습니다.(我先回去了。)"。但是下班的时候常会向上级打招呼说"수고하십시오(您辛苦了)".说这话的年轻人虽然不会认为这句话用做问候语不合适,但是它不宜对长辈使用。对长辈可以说"노고가 많으셨습니다.(您辛苦了)"和"애쓰셨습니다.(您费心了)"等。但是,对于同辈或下级职员,可以问候说"먼저 갑니다. 수고하세요.(我先走了。辛苦了。)"

今天我们学习了韩国语敬语法体系、称谓语和指称语。大家对什么内容的记忆最深刻呢?为了复习今天学到的敬语法,我们再读一遍句子吧?请大家跟读。

父母在韩国生活吗?

社长去办公室了吗?

民浩给奶奶写信了。

爸爸在睡觉。

奶奶在吃饭。

妈妈现在在食堂。

同学们,你们的国家有敬语法体系吗?称谓语和指称语体系是什么样的呢?大家想一想,在SNS上介





绍一下怎么样？课后请认真答题，再确认一下课上学过的内容。希望大家都能认真看那些对学习有帮助的资料。下节课我们会一起学习韩国语中的外来语。外来语是指从外国传入，被韩国语同化，像韩国语一样使用的单词。所以会看到很多大家觉得亲切的单词。今天的课到此为止。下次见。谢谢。

